

장백산천지

제 239 호

2014 년 9 월 25 일

목요일

대륙 민중들 리홍쯔 사부님께 삼가 추석 문안인사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즈음해 밍후이왕에서는 파룬따파 창시인 리홍쯔 사부님께 올리는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 드리는 대량의 중국 대륙민중들의 문안편지를 받았다. 문안 편지는 각 지역의 파룬궁수련생 뿐만 아니라 파룬궁수련을 하지 않는 민중들도 있었다. 파룬궁진상을 똑똑히 안 그들은 파룬따파의 보호를 받아 생활에서 위험이 사라졌다. 그들은 내심으로부터 대법사부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사천성 잉산현의 82 세 노인은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 간경화로 줄곧 치료받았지만 효력이 없어 병원에서는 사형선고를 내리고 가족들에게 후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이때 한 파룬궁 수련생이 그에게 진상을 알린 후 노인에게 중공에서 탈퇴할 것을 권하였다. 노인은 실명으로 중공의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고 또 매일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었다. 지금 노인은 4년 동안 약 한 알 먹지 않았지만 신체는 아주 건강하고, 만면에 생기가 넘쳤다. 추석 명절을 즈음해 그는 파룬따파 수련생에게 부탁하여 사부님께 한가위를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 드렸다.

축하 메일에서 아직 파룬따파를 수련하지 않는 수많은 대륙민중들이 "파룬따파가 세계에 널리 전파 되어 '眞, 善, 忍 (쩐, 썬, 런)'이 사람의 마



음을 정화시켜 줄 것을 기원 합니다.” “리대사님의 가르침에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고, 가짜 악을 팔지 않고,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독 식품을 팔지 않고, 일일이 곳곳마다 남을 위하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표시했다.

민중들은 또 “만약 리대사님께서 당신 제자들더러 우리에게 진상을 알리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중공의 거짓말속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도 구분 못해 그의

희생양이 되고도 몰랐을 것이니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도덕이란 것을 말할 여지도 없는 말세(末世)에 ‘쩐싼런’은 사람들의 도덕을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파룬따파 수련생들의 몸에서 우리는 흙탕속의 순수한 연꽃이 무엇인지를 보아 냅니다. 그들의 고귀한 품성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인류의 희망이며 신의 천사입니다. 또 다시 위대하고 자비하신 리대사님과 파룬따파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밍후이왕] 2004 년 새해 때 나의 동생은 천진에서 일했다. 초닷셋날 저녁 퇴근 후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밤참을 먹으려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 한대가 그들을 들이박았다. 당시 뒤의 차는 음주 운전한 차였다. 사기는 차를 박은 줄도 모르고 계속 앞으로 몰았는데 나중에야 자신의 차가 이미 택시 위에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택시 기사와 나의 동생 친구는 당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나의 동생도 느낌이 좋지 않아 즉시

엄중한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알려준 "일이 생기면 대법사부님께 빌어라" 는 말이 떠올라 "파룬따파하오! 리홍쯔 사부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었다.

그러자 그는 금방 편안해지면서 단번에 가볍게 날아서 나오는 느낌이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장면이 보였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는 천진 탕구 응급중심으로 실려가 구급 치료를 받게 되었다. 동생은 갈비뼈가 3 대 부러지고, 간장도 손상 받았고, 측면의 경추 뼈는 이미 흩어졌고, 윗옷 호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은 이미 분해되었는데 온몸에 상처투성이였다.

이튿날 오후 우리가 급히 도착해서 내가 동생을 보니 온몸은 하얀 백지장마냥 혈기가 조금도 없었다. 동생은 나에게 "리홍쯔 사부님께서 나를 살려줬어요, 대법이 없으면 나의 명도 없었을 거요. 하지만 나의 전신이 다 너무 아파요."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이 고통은 참아야 하며, 능히 전세에 지은 업을 갚을 수 있으니까 아픈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우면 (뒷면에 계속)

(앞면의 계속) 아프지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고 있었는데 그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하루를 지나 가족들이 다시 동생 보러 갔을 때 의사선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동생은 단 하루 밤 사이에 탄 사람같이 변했기 때문이다. 불그스름한 얼굴은 윤기가 났고, 능히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도 있었다.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회복 되었으며, 11일 만에 의사는 퇴원을 해도 된다고 통지했다. 왕 씨 주임 의사는 "저는 35년간 환자를 치료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이리도 빨리 회복한 것을 처음 봅니다, 정말 너무 신기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동생이 일반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떻게 다른 가고 왕 주임이 묻자 나는 파

룬궁 수련생이고, 동생은 사고 날 때 "파룬따파하오, 리훙쯔사부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다고 알려주면서 파룬따파가 그를 구해 주었다고 알려주었다. 왕 주임은 "파룬궁이었구나! 그러기에 이렇게 빨리 낫지. 나도 이 대법을 알아요. 이해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교통경찰들도 놀라면서 택시가 다 이미 망가져 폐기처분 하게 되었는데도 살아난 사람이 있다니 이 사람은 정말 명이 길다고 하면서 사건 처리 할 때 그 본인이 집적 와서 이렇게 엄청난 사고 중에 서도 살아난 사람 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고 했다.

이 일은 나의 온 가족과 친구들 중에서 영향이 아주 컸다. 그들은 파룬따파의 신기함에 깊은 진감을 받았다. ◇

길림성 훈춘시 춘화진의 사악한 관료와 사악한 경찰이 악보 받다

당위서기 리바오상, 파출소 소장 랑웨이 현세현보 받다

[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길림성 보도)길림성 훈춘시 춘화진의 당위서기 리바오상, 파출소소장 랑웨이는 임직기간 당지 파룬궁 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했다. 2011년, 6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여 4명을 불법 노동교양을 시키고, 2명은 세뇌반에 가두어 박해했다.

춘화는 인구가 만 명도 안 되는 작은 진이다. 리바오상은 정치자본을 얻어 승급하기 위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였기에 천벌을 받았다. 2012년 12월 좌우에 그는 스스로 차를 몰고 가다가 랑수 큰 다리 밑에 떨어졌지만 몇 일 후에야 양을 방목하는 사람이 발견하였다. 이는 진짜 현세현보를 받은 것이다.

랑웨이(30세 좌우)는 춘화파출소 소장으로 있는 기간 파룬궁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했다. 파룬궁수련생 한명을 박해하면 상급에서 5000원 상금을 주었는데 그는 이 돈을 혼자 차지했다. 2013년, 그는 뇌혈전에 걸려 지금은 출근도 못하고 집에 있는데 정말로 남을 해치고 자신도 해친 것이다.

사당의 거짓말에 독해진 세인들이여, 당신들이 돈, 지위 이런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당을 따라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 좋은 사람을 박해할 때, 당신이 수종의 권력을 이용해 좋은 사람을 함부로 고문하고, 좋은 사람을 박해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불행을 당하게 했

을 때, 당신은 이미 불법(佛法)을 박해하는 큰 죄를 지은 것이다

파룬궁이 기공이라고 대단할 것 없다고 여기지 말라. 파룬궁은 불법(佛法)수련이며 불법수련을 하는 사람을 박해하면 죄업이 매우 무겁다. 선악에 보응이 있음은 천리이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를 빚는다.

지금 파룬궁을 박해하는 사악한 기구인 '610'은 이미 중공이 감히 공개하지 못하고 감히 승인하지 못하는 죽음의 직위가 됐다. 이는 이미 공검법 내부에서 공개된 비밀이다. '610' 두목 리동성,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정법위원회 서기 저우융강마저 입안되어 조사 처리 받고 있으며, 이번 박해를 발동한 원흉인 장쩌민이 사법처리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사당은 스스로를 구하고 죄악을 떠넘기기 위해 이용 가치가 없는 인원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린 정중하게 박해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형세를 똑똑히 알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길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숙청의 막이 이미 열렸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다 본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파룬궁 수련생을 잘 대하고 불법수련하는 사람을 잘 대하길 바라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퇴로를 남기길 바란다.

**자비로 거둬 권고하거늘
남 따라 죄를 짓지 말라**

밍◎후이◎단◎신



▲2014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제 24회 유럽 최대 중, 동구권 경제포럼이 폴란드-슬로바키아 변경에 있는 유명 관광지에서 개최됐다. 참석한 의원, 정계인사, 국제 유명 회사의 CEO, 의사, 기자, 번역가들로부터 스태프 인원들까지 분분히 파룬궁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중국공산당의 범죄를 반대하는 서명을 하였다. 사진은 중공의 생체장기 적출범죄를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있는 전 체코 공화국 외교부장이다.



▲최근 미국 전문의학월간 '미국의 식잡지'가 인터넷 사이트에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형수의 기관적출'이라는 문장을 발표했다. 문장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 장기적출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중공은 아직까지도 인체에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멈추려는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장은 국제 사회가 공동으로 이런 윤리에 위배하는 사악한 행위를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2014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미국의 파룬궁 수련생은 샌프린시스코 화인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추석거리행사'에 참가하여 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과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 하니 3퇴하여 평안을 보장하자'는 것을 알려주었다. 100명이 되는 사람들이 '3퇴'(당, 단, 대 탈퇴)를 하였고 적지 않은 화인들이 몇 년 동안 진상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 파룬궁의 진상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 중에는 이미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사람도 있었고, 곧 시작하려는 사람도 있었다.